

[성주간] 성지주일 수난복음 가해

마태 26, 14 - 27, 66



(해설자)

마태오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 기입니다.



(해설자)

그 때에 열두 제자가운데 하나로 유다이스카리옷이라는



(다른사람)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물었다. ["내가 예수님을 여러



분에게 넘겨 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해설자)

수석 사제들은 은돈서른뉘를 내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



(다른사람)

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해설자)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리스도)

["도성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 까 왔 으 니 내 가 너 의 집 에 서 제 자 들 과 함 께 파 스카 축

(해설자)
제 를 지 내 겠 다.' 하 십 니 다.' 하 여 라."] 제 자 들 은 예 수 님 께 서

분 부 하 신 대 로 파 스카 음 식 을 차 렸 다. 저 녁 때 가 되 자

예 수 님 께 서 열 두 제 자 와 함 께 식 탁 에 앉 으 셸 다. 그 들 이

음 식 을 먹 고 있 을 때 에 예 수 님 께 서 말 씀 하 셸 다.

(그리스도)

["내 가 진 실 로 너 희 에 게 말 한 다. 너 희 가 운 데 한 사 람 이

(해설자)

나 를 팔 아 넘 길 것 이 다."] 그 러 자 제 자 들 은 몹 시 근 심 하 며

(다른사람)

저 마 다 물 기 시 작 하 였 다. ["주 님, 저 는 아 니 겠 지 요?"]

(해설자)

(그리스도)

예 수 님 께 서 대 답 하 셸 다. ["나 와 함 께 대 접 에 손 을 넣 어 빵 을

적 시 는 자, 그 자 가 나 를 팔 아 넘 길 것 이 다. 사 람 의 아 들

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 간다. 그러

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 넘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
(해설자)

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 넘길 유다가 물었다.

(다른사람) (해설자)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리스도) (해설자)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리스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해설자)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그리스도)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 날까지, 이제부터 포도나무
(해설자)

열매로 빛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산으로 갔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에게

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 떼가 흩어지리라.' 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갈 것이다."] (해설자) (다른사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모두 스승님께서서 떨어



저 나 갈 지 라 도, 저 는 결 코 떨 어 져 나 가 지 않 을 것 입 니 다."]

(해설자)

(그리스도)



예 수 님 께 서 베 드로 에 게 말 씀 하 셴 다. ["내 가 너 에 게 진 실 로



말 한 다. 오 늘 밤 닭 이 울 기 전 에 너 는 세 번 이 나 나 를 모

(해설자)



른 다 고 할 것 이 다."] 베 드로 가 다 시 예 수 님 께 말 하 였 다.

(다른사람)



["스 승 님 과 함 께 죽 는 한 이 있 더 라 도, 저 는 스 승 님 을 모 른

(해설자)



다 고 하 지 않 겠 습 니 다."] 다 른 제 자 들 도 모 두 그 령 게 말 하



였 다. 그 때 에 예 수 님 께 서 제 자 들 과 함 께 겿 세 마 니 라



는 곳 으 로 가 셴 다. 그 리 고 제 자 들 에 게 말 씀 하 셴 다.

(그리스도)



["내 가 저 기 가 서 기 도 하 는 동 안 여 기 에 앓 아 있 어 라."]

(해설자)



그 런 다 음, 베 드로 와 제 베 대 오 의 두 아 들 을 데 리 고 가 셴 다.



그분께서는 근심과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 때에
(그리스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해설자)



예수님께서 앞으로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

(그리스도)



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실 수 만



있으시면 이 잔이 저를 비켜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



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해설자)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



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리스도)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 이 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 하여라. 마음

(해설자)

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리스도)

두 번째로 가서 기도 하셨다. ["아버지, 이 잔이 비켜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해설자)

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감겨 자고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시고 다시가시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 하셨다.

(그리스도)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씀 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

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때가 가까웠다. 사람

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해설자)



나를 팔아 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



하고 계실 때에 바로 열두 제자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그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보낸 큰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그분을 팔아 넘길 자는,

(다른사람)



["내가 입 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으시오."]

(해설자)



하고 그들에게 미리 신호를 일러 두었다. 그는 곧 바로

(다른사람)



예수님께 다가가 말하였다. ["스승님, 안녕하십니까?"]

(해설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입을 맞추었다. 예수님께서 말씀

(그리스도)

(해설자)



하셨다. ["친구야, 네가 하러 온 일을 하여라."] 그 때에



우리가 다가와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았다.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대사제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 버렸다.

(그리스도)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잡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 너는 내



가 내 아버지께 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청하기만 하



면 당장에 열두 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 주실



것이다. 그러면 일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이

(해설자)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그 무

(그리스도)



리에게도 이렇게 이르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단 말이나? 내가 날



마 다 성 전 에 앞 아 가 르 쳤 지 만 너 희 는 나 를 붙 잡 지 않 았 다.



예 언 자 들 이 기 록 한 성 경 말 씀 이 이 루 어 지 려 고 이 모 든
(해설자)



일 이 일 어 난 것 이 다."] 그 때 에 제 자 들 은 모 두 예 수 님 을



버 리 고 달 아 났 다. 무 리 는 예 수 님 을 붙 잡 아 카 야 파



대 사 제 에 게 끌 고 갔 다. 그 곳 에 는 율 법 학 자 들 과 원 로 들



이 모 여 있 었 다. 베 드로 는 멀 짝 이 떨 어 져 예 수 님 을 뒤



따 라 대 사 제 의 저 택 까 지 가 서, 결 말 을 보 려 고 안 뜰 로



들 어 가 서 종 들 과 함 께 앉 았 다. 수 석 사 제 들 과 온 최 고 의 회



는 예 수 님 을 사 형 에 처 하 려 고 그 분 에 대 한 거 짓 증 언 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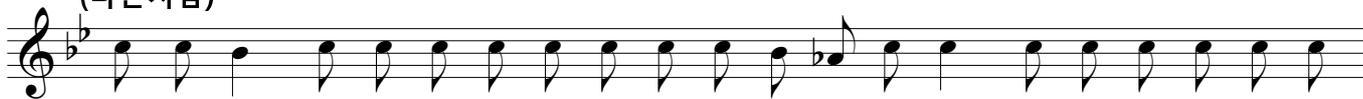


찾 았 다. 거 짓 증 인 들 이 많 이 나 섰 지 만 하 나 도 찾 아 내



지 못 하였다.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하였다.

(다른사람)



["이 자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해설자)



세울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대사제가 일어나 예수님

(다른사람)



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소? 이자들이

(해설자)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된 일이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입을 다물고 계셨다. 대사제가 말하였다.

(다른사람)



["내가 명령하오.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해설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밝히시오."] 예수님께

(그리스도)



서 대사제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의 아들



이 전 능 하 신 분 의 오 른 쪽 에 앉 아 있 는 것 과 하 늘 의 구 름

(해설자)



을 타 고 오 는 것 을 볼 것 이 다."] 그 때 에 대 사 제 가 자 기 겔 옷 을 찢

(다른사람)



고 이 령 게 말 하 였 다. ["이 자 가 하 느 님 을 모 독 하 였 습 니 다.



이 제 우 리 에 게 무 슨 증 인 이 더 필 요 합 니 까? 방 금 여 러 분



은 하 느 님 을 모 독 하 는 말 을 들 었 습 니 다. 여 러 분 의 의 건

(해설자)

(다른사람)



은 어 땡 습 니 까?] 그 들 이 대 답 하 였 다. ["그 자 는 죽 을 죄

(해설자)



를 지 었 습 니 다."] 그 때 에 그 들 은 예 수 님 의 얼 굴 에 침 을



빨 고 그 분 을 주 먹 으 로 찢 다. 더 러 는 손 찌 검 을 하 면 서 말 하

(다른사람)



였 다. ["메 시 아 야, 알 아 맞 혀 보 아 라. 너 를 친 사 람 이 누 구 냐?"]

(해설자)



베 드로 는 안 들 바 깔 쪽 에 앉 아 있 었 는 데 하 녀 하 나 가 그 에

(다른사람)



게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레아 사람 예수와

(해설자)



함께 있었지요?"]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다른사람) (해설자)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대문



로 나가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이들에게

(다른사람)



말하였다. ["이이는 나 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해설자) (다른사람)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면서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

(해설자)



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서 있던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른사람)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도 그들과 한 패임을 립 없소.

(해설자)



당신의 말씨를 들으니 분명하오."] 그때에 베드로는 거짓



이 면 천 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말하였다.

(다른사람)

(해설자)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 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슬피 울었다. 아침이 되자 모든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한 끝에,



그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겼다.



그때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유다는 그분께서 사형 선



고를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치고 서는, 그 은 돈서른 닢



을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에게 돌려주면서 말하였다.

(다른사람)



["죄없는분을 팔아 넘겨 죽게 만들었으니 나는 죄를 지었소."]

(해설자)

(다른사람)



그 들 은 말 하 였 다. ["우 리 와 무 슨 상 관 이 냐? 그 것 은

(해설자)



네 일 이 다."] 유 다 는 그 은 돈 을 성 전 안 에 다 내 던 지 고 물 러



가 서 목 을 매 달 아 죽 었 다. 수 석 사 제 들 은 그 은 돈 을 거

(다른사람)



두 면 서 말 하 였 다. ["이 것 은 피 값 이 니 성 전 금 고 에 넣 어

(해설자)



서 는 안 되 겠 소."] 그 들 은 의 논 한 끝 에 그 돈 으 로 용 기 장



이 밭 을 사 서 이 방 인 들 의 묘 지 로 쓰 기 로 하 였 다. 그 래



서 그 밭 은 오 늘 날 까 지 '피 밭' 이 라 고 불 린 다. 그 리 하 여



예 레 미 야 예 언 자 를 통 하 여 하 신 말 씀 이 이 루 어 졌 다.



"그 들 은 은 돈 서 른 님, 값 어 치 가 매 겨 진 이 의 몸 값, 이 스라



엘 자 손 들 이 값 어 치 를 매 긴 사 람 의 몸 값 을 받 아 주 님 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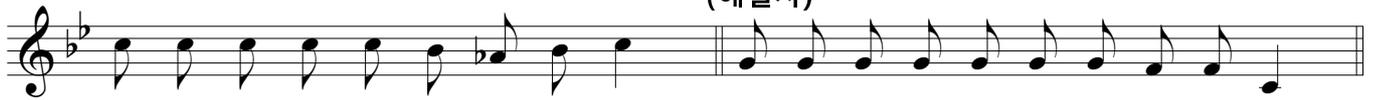
서 나 에 게 분 부 하 신 대 로 응 기 장 이 받 값 으 로 내 놓 았 다."

(다른사람)



예 수 님 께 서 총 독 앞 에 서 셧 다. 총 독 이 물 었 다. ["당 신 이

(해설자)



유 다 인 들 의 임 금 이 오?"] 예 수 님 께 서 대 답 하 셧 다.

(그리스도)

(해설자)



["네 가 그 령 게 말 하 고 있 다."] 그 러 나 수 석 사 제 들 과 원 로 들 이



당 신 을 고 소 하 는 말 에 는 아 무 대 답 도 하 지 않 으 셧 다.

(다른사람)



그 때 에 빌 라 도 가 예 수 님 께 물 었 다. ["저 들 이 갖 가 지 로

(해설자)



당 신 에 게 불 리 한 증 언 을 하 는 데 들 리 지 않 소?"] 그 러 나 예



수 님 께 서 는 어 떠 한 고 소 의 말 에 도 대 답 을 하 지 않 으 셧 다.



그 래 서 총 독 은 매 우 이 상 하 게 여 게 다. 축 제 때 마 다 군 중



이 원 하 는 죄 수 하 나 를 총 독 이 풀 어 주 는 관 례 가 있 었 다.



마침 그 때 에 예수 바라 빠 라는 이름 난 죄 수가 있 었 다.

(다른사람)



사 람 들 이 모 여 들 자 빌 라 도 가 그 들 에 게 물 었 다. ["내 가



누 구 를 풀 어 주 기 를 원 하 오? 예 수 바 라 빠 요 아 니 면

(해설자)



메 시 아 라 고 하 는 예 수 요?"] 빌 라 도 는 사 람 들 이 예 수 님



을 시 기 하 여 자 기 에 게 넘 겼 음 을 알 고 있 었 던 것 이 다.



빌 라 도 가 재 판 석 에 앉 아 있 는 데 그 의 아 내 가 사 람 을 보

(다른사람)



내 어 말 하 였 다. ["당 신 은 그 의 인 의 일 에 관 여 하 지 마 세 요.



지 난 밤 꿈 에 내 가 그 사 람 때 문 에 큰 괴 로 움 을 당 했 어 요."]

(해설자)



그 동 안 수 석 사 제 들 과 원 로 들 은 군 중 을 구 슬 려 바 라 빠



를 풀 어 주 도 록 요 청 하 고 예 수 님 은 없 애 버 리 자 고 하 였 다.

(다른사람)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두사람 가운데에서 누구를

(해설자)



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오?"] 군중이 대답하였다.

(회중)

(해설자)



["바 - - 라 빠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다른사람)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오?"]

(해설자)

(회중)

(해설자)



군중이 모두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다른사람)



다시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해설자)

(회중)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해설자)



빌라도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받아 군중 앞에서 손

(다른사람)



을 씻으며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책임이 없소.

(해설자)



이 것은 여 러 분 의 일 이 오."] 그 러 자 은 백 성 이 대 답 하 였 다.

(다른사람)



["그 사 람 의 피 에 대 한 책 임 은 우 리 와 우 리 자 손 들 이 질 것 이 오.]"

(해설자)



그 래 서 빌 라 도 는 바 라 빠 를 풀 어 주 고 예 수 님 을 채 찍 질



하 게 한 다 음 십 자 가 에 못 박 으 라 고 넘 겨 주 었 다.



그 때 에 총 독 의 군 사 들 이 예 수 님 을 총 독 관 저 로 데 리 고



가 서 그 분 들 레 에 온 부 대 를 집 합 시 킨 다 음, 그 분 의 옷



을 벗 기 고 진 홍 색 외 투 를 입 혔 다. 그 리 고 가 시 나 무 로 관



을 엮 어 그 분 머 리 에 씌 우 고 오 른 손 에 갈 대 를 들 리 고



서 는 그 분 앞 에 무릎 을 꿇 고 이 렇 게 말 하 며 조 롱 하 였 다.

(다른사람)

(해설자)



["유 다 인 들 의 입 금 님 만 세!"] 군 사 들 은 또 예 수 님 께 침 을

별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때렸다. 그렇게 예수

님을 조롱하고 나서 외투를 벗기고 그분의 겹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러 끌고 나갔다. 그들

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보고 강제로 예

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이윽고 골고타 곧 '해골터'

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들이 쓸개즙을 섞은 포도주를 예수

님께 마시라고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맛을 보시고서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겹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거기에 앉아 예수님을 지켰다. 그들은 또 그분의 머리 위에

죄 명을 붙여 놓았다. 거기 - 에 는 '이 자 는 유 다 인 들 의

임 금 예 수 다' 라 고 쓰 여 있 었 다. 그 때 에 강 도 두 사 람 도

예 수 님 과 함 께 십 자 가 에 못 박 혔 는 데, 하 나 는 오 른 쪽 에

하 나 는 왼 쪽 에 못 박 혔 다. 지 나 가 던 자 들 이 머 리 를 흔 들

어 대 며 예 수 님 을 모 독 하 면 서 이 렇 게 말 하 였 다.

(다른사람)

["성 전 을 허 물 고 사 흘 안 에 다 시 짓 겠 다 는 자 야, 너 자 신 이

나 구 해 보 아 라. 네 가 하 느 님 의 아 들 이 라 면 십 자 가 에

(해설자)

서 내 려 와 보 아 라."] 수 석 사 제 들 도 이 런 식 으 로 율 법 학

(다른사람)

자 들 과 원 로 들 과 함 께 조 롱 하 며 말 하 였 다. ["다 른 이 들 은

구 원 하 였 으 면 서 자 신 은 구 원 하 지 못 하 는 군. 이 스 라 엘

의 임 금 님 이 시 면 지 금 십 자 가 에 서 내 려 와 보 시 지.

그 러 면 우 리 가 믿 을 터 인 데. 하 느 님 을 신 뢰 한 다 고 하 니,

하 느 님 께 서 저 자 가 마 음 에 드 시 면 지 금 구 해 내 보 시 라 지.

(해설자)

'나 는 하 느 님 의 아 들 이 다.' 하 였 으 니 말 이 야."] 예 수 님 과

함 께 십 자 가 에 못 박 힌 강 도 들 도 마 찬 가 지 로 그 분 께 비

아 냥 거 렸 다. 낮 열 두 시 부 터 어 둠 이 온 땅 에 덮 여 오 후

세 시 까 지 계 속 되 었 다. 오 후 세 시 즘 에 예 수 님 께 서 큰 소

(그리스도)

리 로 부 르 짓 으 셸 다. ["엘 리 엘 리 레 마 사 박 타 니?"]

(해설자) (그리스도)

이 는 ["저 의 하 느 님, 저 의 하 느 님, 어 찌 하 여 저 를 버 리 셸

(해설자)

습 니 까?"] 라는 뜻 이 다. 그 곳 에 서 있 던 자 들 가 운 데 몇 이

(다른사람)



이 말 씘 을 듣 고 말 하 였 다. ["이 자 가 엘 리 야 를 부 르 네."]

(해설자)



그 러 자 그 들 가 운 데 한 사 람 이 곧 달 려 가 서 해 면 을 가 져 와



신 포 도 주 에 들 뻑 적 신 다 음, 갈 대 에 꽃 아 예 수 님 께 마 시 게

(다른사람)



하 였 다. 그 러 나 다 른 사 람 들 은 말 하 였 다. ["가 만, 엘 리 야 가

(해설자)



와 서 그 를 구 해 주 나 보 시 다."] 예 수 님 께 서 는 다 시 큰 소 리



로 외 치 시 고 나 서 숨 을 거 두 셧 다.

[무릎을 꿇고 잠시 묵상한다.]

(해설자)



그 러 자 성 전 휘 장 이 위 에 서 아 래 까 지 두 갈 래 로 찢 어 졌 다.



땅 이 흔 들 리 고 바 위 들 이 갈 라 졌 다. 무 덤 이 열 리 고 잠



자 던 많 은 성 도 들 의 몸 이 되 살 아 났 다. 예 수 님 께 서 다 시



살아나신 다음,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백인 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



님을 지키던 이들이 지진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다른사람)



몸시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해설자)



아드님이셨다."]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래아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시종들던 이들이다. 그들 가운데에는 마리아 막달레나,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제베대오 아들들의 어머니



니도 있었다. 저녁 때가 되자 아리마태아 출신의 부유한 사



람으로서 요셉이라는 자가 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

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자, 빌라도가 내주라고 명령하였다. 요셉은 시신을

받아 깨끗한 아마포로 감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시고 나서, 무덤 입구에 큰 돌을 굴러 막아 놓고 갔

다. 거기 무덤 맞은 쪽에는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

가 앉아 있었다. 이튿날 곧 준비 일 다음 날에 수석 사제

들과 바리새자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말하였다.

(다른사람)

["나리, 저 사기꾼이 살아 있을 때, '나는 사흘 만에 되 살아

날 것이다.' 하고 말한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그러

니 셋째 날까지 무덤을 지키도록 명령하십시오. 그의

제 자 들 이 와 서 시 체 를 흠 쳐 내 고 서 는, '그 분 은 죽 은 이 들

가 운 데 에 서 되 살 아 나 셧 다.' 하 고 말 할 지 도 모 립 니 다.

그 러 면 이 마 지 막 기 만 이 처 음 것 보 다 더 해 로 울 것 입 니 다."

(해설자)

(다른사람)

빌 라 도 가 대 답 하 였 다. ["당 신 들 에 게 경 비 병 들 이 있 지 않 소.

(해설자)

가 서 재 주 껏 지 키 시 오."] 그 들 은 가 서 그 들 을 봉 인

하 고 경 비 병 들 을 세 - 워 무 덤 을 지 키 게 하 였 - 다.

(해설자)

(회중)

주 님 의 말 씀 입 - 니 다. 그 리 스 도 - 님 찬 미 - 합 니 다.